



즉시 배포용: 2017년 8월 3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 주지사, 9월 2일까지 레이크 온타리오(LAKE ONTARIO) 및 세인트 로렌스 리버(ST. LAWRENCE RIVER)에서 시속 5 마일의 선박 운행 속도 제한 연장**

***홍수 피해 지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노-웨이크 존(No-Wake Zone)의 연장***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, 9월 2일 토요일까지 레이크 온타리오(Lake Ontario) 및 세인트 로렌스 리버(St. Lawrence River)에서 시속 5 마일의 운행 속도 제한을 연장하도록 뉴욕주 공원,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(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,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)의 커미셔너에게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해안에서 600 피트 이내에 운행하는 선박은 항적 파도의 영향으로 인한 해안선의 주거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항해를 촉진하기 위해 시간당 5 마일의 운행 속도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
**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** “레이크 온타리오(Lake Ontario) 및 세인트 로렌스 리버(St. Lawrence River)를 따라 높아진 수위는 주택 소유주와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선박의 항적 파도를 금지하는 노-웨이크 존(no-wake zone)을 한달 더 연장함으로써, 우리는 뉴욕의 취약한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해 보트 운전자들이 협조하게 만들 것입니다. 이 지역의 연안 홍수에 대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의 일환인 시간당 5 마일의 선박 운행 속도 제한은 해안선을 따라 지역사회와 주민 양쪽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”

속도를 줄이는 조치는 높아진 수위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된 수많은 위험과 잔해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트 운전자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 이 속도 제한을 추가로 일개월 더 연장함으로써 레이크 온타리오(Lake Ontario) 및 세인트 로렌스 리버(St. Lawrence River) 해안을 따라 선박이 운행하면서 만드는 항적 파도가 낮게 유지됩니다. 배가 지나간 흔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도는 주거 시설 및 지자체 인프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안선 침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지방 자치단체는 해안에서 600 피트 내의 운행 속도를 5 마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레크리에이션 보트 운전자들에게 위반 시마다 250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.

**주립공원(State Parks)의 Rose Harvey**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우리는 레이크 온타리오(Lake Ontario) 및 세인트 로렌스 리버(St. Lawrence River)에서 선호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보트 운전자들이 우리 주 해안 환경을 소중하게 지켜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. 감소된 운행 속도 제한을 준수함으로써 보트 운전자들은 해안선을 따라 생기는 침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떠한 잠재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보트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”

정상적인 조건하에서, 보트 운전자는 해안, 선착장, 부두, 뗏목, 부유물 또는 정박한 보트로부터 100 피트 이내에서는 시속 5 마일의 운행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. 제한 속도가 게시되지 않을 경우,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언제나 선박을 운행해야 합니다. 선박은 반드시 전망이 트인 공간 내에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선박 운항자는 선박의 항적 파도가 원인인 모든 손상에 대해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